

대한민국 대표 금관 앙상블 공연 '호응'

완주 콩쥐팥쥐도서관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웍 프로그램 일환 '코리아나츠 브라스' 공연

완주군 콩쥐팥쥐도서관에 대한민국 대표 금관 앙상블인 코리아나츠 브라스가 찾아왔다. 11일 콩쥐팥쥐도서관은 지난 8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웍 프로그램 '2022 K-ARTS 찾아가는 문화행사' 일환으로 코리아나츠 브라스가 공연을 펼쳐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예술 나눔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대표 금관 앙상블인 코리아나츠 브라스의 Music Radio 공연을 선보였다.

2011년 창단된 코리아나츠 브라스 앙상블은 대한민국 국제관악제의 홍보대사로 활동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초청연주를 비롯한 서울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저명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연 한 달 전부터 지역주민의 사연을 접수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 털어 놓고 싶은 이야기, 나의 추억이야기 등 많은 사연에 어울리는 음악을 라이브 연주로 감상하며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부모님과 함께 공연에 참여한 한 지역



콩쥐팥쥐도서관은 지난 8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웍 프로그램 '2022 K-ARTS 찾아가는 문화행사' 일환으로 코리아나츠 브라스가 공연을 펼쳐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주민은 "가족들과 책도 읽고 음악도 들어서 힐링 되는 시간을 보내 즐거웠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연을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도서관은 오는 15일에 지역주민

'제1회 정인승 선생 정신선양 시낭송 대회' 성료

장수군, 학생부·일반부 경연

계북면 주민자치 위원회 주최, 정인승 한글학교 주관으로 지난 8일 계북면 참샘골 체육관에서 '제1회 정인승 선생 정신선양 전국 시낭송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장수군청 및 전라북도교육청,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장수문화원의 후원으로 진행돼 정인승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 시낭송 대회는 장수군 계북면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민족 말살정책의 혹독한 감시와 탄압 속에 '우리말'이 산산이 흩어질 위기에 처하였을 때 "말과 글을 잃게 되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는 정신으로 한글을 지켜낸 건재 정인승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후식 군수, 장정복 군의회의장, 서거식 전북도교육감, 박용근 전북도의회의원 등은 축사를 통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정인승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본 대회가 번창해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나아가 장수군 문화발전전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대회는 학생부 30명과 일반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서 시낭송 경연을 진행해 관람객이 가을의 화창한 날씨와 감성에 어울리는 주옥같은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대회 결과 일반부 대상 1명(하태숙), 금상 1명(우모세), 은상 2명(김영자, 신방운) 외 동상 10명과 장려상 12명이 수상하였으며, 학생부 대상 1명(최예준), 금상 2명(배민서, 이서우), 은상 4명(이수연, 채호민, 채예린, 최민준) 외 동상 6명이 수상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4회 마이산의 메아리 전국 시낭송대회' 열려

구름재 박병순 시조시인 선양 위해 실시

(사)한국예총진안지회(회장 유종구)는 11일 구름재 박병순 선생의 문화정신을 높이 기리기 위한 제4회 마이산의 메아리 전국 시낭송대회를 전통문화전수관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본선 참가자와 가족, 친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청중들과 함께 호흡하며 각자 개성을 담은 시낭송 솜씨를 마음껏 발휘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구름재 박병순 시조 1편, 자유시 1편씩을 낭송하고, 심사위원 5명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이를 평가해 모두 합산하는 형식으로 등위를 기렸다.

대회 결과 대상은 전주출신 송영림 씨가 차지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200만원과 시낭송가 인증서가 수여됐다. 금상(1명·상금 100만원)은 임여향(진안) 씨, 은상(2명·상금 50만원)은 신남춘(전주) 조영순(장수) 씨, 동상(3명·상금 30만원)은 김미숙(익산) 최명자(대전) 황대승(울산) 씨가 차지했다. 또한 장려상(5명·상금 10만원)은 박선미(대구) 오명희(부산) 우정진(대구) 이상자(서울) 이숙자(전주)씨에게 주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30회 금파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 대회 개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서 5개 부분 진행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사)강도근동편제판소리보존회 주관으로, 제30회 금파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 대회가

지난 8일(예선)부터 9일(본선)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대회는 5개 일반부, 신인부(단체 및 개인),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사)강도근동편제판소리보존회 주관으로, 제30회 금파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 대회가 지난 8일(예선)부터 9일(본선)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부분으로 △일반부 대상(국회의장상)에는 김정민 씨 △신인부(개인)대상은 강호성 씨 △신인부(단체) 대상은 양혜자 외 8명 △고등부 대상은 김승아 양 △중등부 대상은 김현서 양 △초등부 대상은 이다은 양이 수상했다.

금파 강도근 명창은 1918년 남원에서 태어나 16세 되던 해에 김정문 문하에 들어가 1년을 사사하고 20대에 조선성악연구회에서 당대 최고의 명창 중 한 사람인 송만갑 선생에 판소리 다섯 마당을 두루 배웠다고 한다. 이후 지리산 쌍계사 일대에서 7년여 동안 독 공했고 68년 전국국악경연대회 세종상, 86년 KBS국악대상 등을 수상했다.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홍보가 예능보유자였던 강도근 명창은 73년에 남원 국악원 판소리 선생으로 부임하여 계속 남원에서 머물면서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으며 안숙선, 오갑순, 강정숙, 이난초, 전인삼 명창 등의 많은 제자를 육성했다. 강도근 명창은 향년 78세에 남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한편 이난초 회장은 "대회를 통해 강도근 명창의 율곡은 소리! 정직한 소리! 그것만이 좋은 소리다!라는 신념이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애국지사 '춘고 이인식' 인형극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장미공연장에서 오는 23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와 3시, 박물관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하는 인형극을 선보인다.

박물관에서 상설 운영하는 인형극 단체는 지난 2013년부터 시민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군산지역의 근대기 영웅들의 이야기를 인형극화하고 있다. 그동안 추곡영웅 채근석과 독립의군부 임병찬 등의 인형극 공연을 통해 지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박물관을 만

들고자 노력해 왔다.

올해 선보이는 인형극은 군산 출신 애국지사 춘고 이인식의 삶을 극화한 작품으로, 춘고 이인식 선생은 일제 강점기 3·1운동에 학생대표로 가담해 독립자금 조달 등 항일운동을 펼쳤다. 또 해방 후에는 사재를 털어 폐교 위기에 놓인 임피중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등 교육활동에 전념한 애국지사로 현재 월명공원에 선생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가을뜨락 작은 음악회' 장수 지역 음악동호인 공연 펼쳐져

지역내 음악동호인과 뮤지션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 '가을뜨락 작은 음악회'가 11일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음악회는 장수군과 작은길 라이브카페가 함께 하는 공연으로 무궁화 합창단의 차나눔 행사로 시작하였으며, 지역단체인 장수색소폰동호회 공연, 댄디앙상을 연주 등 동호회의

공연과 작은길라이브 공연, 초대가수의 공연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가을밤의 음악향연을 선사했다.

특히 외부에서 방문한 관람객도 많아, 지역민과 함께 음악을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자리가 마련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장수=고관호 기자

함께하는 100년 동행 **전주김제암주축협 김제지점 오픈** 2022.10.7 금

축! 전주매일 창간

"참여우한우프라자 에서는 국내산 참숯만을 사용합니다."

전주김제암주축협 김제지점

전라북도 김제시 콩쥐팥쥐로 35

참여우 정육식당 : 063)542-6790

하나로 마트 : 063)542-6791